

2024년 12월 22일(주일) 제1714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축하 특별행사
24일(화) 오후 8시 - 성탄전야예배
25일(수) 새벽 5시 - 성탄새벽예배
25일(수) 오전 11시 - 성탄축하예배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축하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24일(화) 오후 8시에 성탄전야예배를 드립니다. 25일(수) 새벽 5시에는 성탄새벽예배를 드리며 오전 11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

리는 성탄축하예배가 있으며 성탄헌금을 드립니다.

수요 1, 2부 예배는 성탄예배로 대체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화) : 10시 30분 송년음악회
12월 31일(화) :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1월 5일(주일) : 1, 2, 3부 예배 시 신년감사예배 · 성찬식
찬양예배 후 예·결산 승인 공동의회

2025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2024년 12월 31일(화)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로 시작하여 11시에는 소등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예배가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됩니다. 수요 1, 2부 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소등이 되

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첫 주일인 1월 5일(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1, 2, 3부 예배 시 성찬식을 가지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결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2024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임 교역자



황하은 목사

- 울산대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M.Div.)
- 영락교회 중등부 전도사
- 영락교회 중등부 준전임전도사
- 과천교회 전임전도사
- 과천교회 부목사

교구위원회 총회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

오늘 교구총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교구장과 부교구장, 교구간사 그리고 다락방장님들은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교구를 돌보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성탄절 빵 나눔

25일(수) 성탄축하예배 후

12월 25일(수) 성탄축하예배 후 사라전도회 (회장 : 남태순 은퇴권사)에서 제공하는 성탄절 빵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빵은 '사라의 정원'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빵을 준비해 주시는 사라전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일정 안내

- 12. 22(주일) 교구 총회
교육부서 성탄축하 행사
- 12. 24(화) 성탄전야예배(오후 8시)
- 12. 25(수) 성탄새벽예배(5시)(호산나)
성탄축하예배(11시)(임마누엘)
(수요1, 2부 예배는 성탄예배로 대체)
- 12월 중 찬양대 총회
- 12. 29(주) 향촌직 은퇴, 통독 시상
교회학교 졸업, 장한 어머니상
특별제직회(예·결산)
- 12. 31(화) 송년음악회(오후 10시 30분)
- 2025년
- 1. 1(수) 송구영신예배
(새벽기도회, 수요1, 2부 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
- 1. 5(주)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공동의회(예·결산)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따뜻한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본질은 단순히 외적인 축제나 화려한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성탄절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으며, 죄로 인해 떨어진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초대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사랑의 시작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억압받으며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탄절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소망을 다시금 붙잡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희망하는 구원과 사랑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고 초대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받는 날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과 작은 배려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낮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을 품으시려 가장 연약하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구유에 임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단순한 축제를 넘어,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소망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계절, 예수님이 구유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임목사 손달익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제 마음도 머물기를...

청년부와 3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시던 현종필 목사님께서 동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며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황하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순례자는 황 목사님과 지면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순례자 : 안녕하세요. 황하은 목사님! 서울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교회에 부임하게 된 황하은 목사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영락교회 중등부와 과천교회 청년부를 섬겨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해감천교회 위임목사로 사역 중이시며,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라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 가게 되어 정말 기쁘고 기대가 큼니다. 지금까지 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에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례자 :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지만, 대학생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복음에 빛진 자로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도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제 시선 또한 향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순례자 : 서울교회에서 섬기실 부서와 그 부서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위임목사님의 목회 지원을 비롯해 청년부, 3부 예배 찬양팀, 그리고 여러 위원회와 부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제 사역의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래서 청년 사역에 대한 열정이 큼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벅차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황하은 목사님께서 서울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담당하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진행 정리 : 유은경 집사(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 유년부

달란트를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유년부에서는 아이들의 예배 참석과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주 달란트를 지급하고, 이렇게 모은 달란트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달란트 시장을 열어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다양한 물건과 간식을 달란트를 통해 얻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행동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 상점'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나눔 상점은 아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라면, 참치캔, 스낵과 같은 생활용품을 구매해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는 과연 아이들이 이 활동에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할지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나눔 상점의 문이 열리자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준비한 모든 물품이 빠르게 기부되는 뜻깊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아이들은 깨달

았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작은 물꼬만 터주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달란트를 기꺼이 내어놓으며 기쁨으로 동참한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나눔의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 작은 나눔이 더 큰 사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학교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의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년부 교사 일동

구약 성경통독을 통해 만나 사랑의 하나님



채승호 집사
(청년부)

살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와 전 세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소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권력을 원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가치를 주장하면 미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혜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회 속

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인지를 알고 배우자는 취지로 청년부에서 구약 1독반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종필 목사님 및 최종국 목사님의 지도로 청년 18명이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선생님 네 분께서도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일 년 동안 “읍시잡전(읍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제외한 세상이 창조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을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해 망하여 처참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특히나 네 번의 목사님 특강으로 “모세오경”, “열왕기, 역대하에 담긴 의미”, “성전수축의 역사”, “선지서 개괄”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들과 성경 안에서의 숨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배우고 함께 느낀 바를 나누는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약 1독반이 구성되고 반원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가장 감명 깊게 읽고 묵상했던 성경말씀 한 구절을 찾아 묵상의 내용과 함께 올리셨습니다. 아직 그날의 분량을 못 읽은 친구들에게는 거룩한 자극이 되었으며 서로 다른 감상을 올림으로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어떤 울림들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우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1독을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백성을 세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임을 그들을 통해 알려주시려 했지만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과 불안과 인간적인 방식과 타락으로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완전한 사랑,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직접 회복 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난 한 번도 너를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 사랑한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구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서울교회의 성도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눈 앞이 캄캄한 어둠 같아도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어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YOU ARE INVITED TO
Christmas
사랑부 성극
믿음 소망 사랑

12. 22
(주일)
오전 11시
603호



사랑부(부장 : 장창수 안수집사)는 22일(주일)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믿음 소망 사랑' 제목의 성극을 공연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람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육국 학생들의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영·유아·유치부는 정선아 집사님의 지도, 신아령 선생님의 반주로 "동방박사 세 사람" 등 성경암송과 찬양, 율동을 드립니다. 유년부는 장해라 선생님의 지도, 박윤희 선생님의 반주로 "저 들 밖에 한 밤중에" 외 2곡을, 초등부는 조상희 집사님의 지도, 홍혜란 집사님의 반주로 워십 "기쁜 소식"과 찬양을 드립니다. 중등부는 이신원 선생님의 지도로 "지극히 높으신 주"를 찬양드리며 고등부는 박유진 선생님의 지도와 장하늘 선생님의 반주, 한도연 선생님의 드럼과 함께 "그 애기 들어봤니"를 찬양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4강 : 성만찬(1)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의 의미를 가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만찬은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예전 혹은 제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의는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의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신약의 성만찬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

으로 임재하시어 실제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성만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난을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함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있음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증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75문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는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이하신 희생제사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그 모든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여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만찬 뿐만 아니라 특정 공동체에서 행해지

는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인들에게 영성체를 분배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생명을 얻은 이후에 생명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교파마다 다르지만, 칼뱅주의의 입장인 영적임재설의 관점에서 보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 - 기억나게 하는 것 - 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에 유익을 주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76문 :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요 그의 뼈 중의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

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므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입증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피가 되어주고 살이 되어주겠다는 맹세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만찬의 떡이 찢어지고 떼어지는 것과 성만찬의 포도주가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보고,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맛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것을 머리로 떠올리게 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감각으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인문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초시간적 동일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모든 제의(ritual)는 초시간적 동일성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임마누엘찬양대의 성탄절 특별찬양이 있었습니다.

식사 제공



- 9교구 김정훈 안수집사, 김희정 권사 (이순례 은퇴권사의 증손녀 김정훈 안수집사 · 김희정 권사의 손녀 김원준 집사 · 신지선 성도의 딸 김도아 아기의 첫돌을 맞으며)

예배당 입장 시, 음료 포함 음식물은 자제하여 주세요

예배당 입장 시, 음료 포함 음식물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음료 필요시 텀블러나 컵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성경통독자 시상 접수

2024년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은 통독 내용을 각 교구 간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인 29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12월23일	월	고전 10:23-12:31	대하27,28	계14	속10	요13
12월24일	화	고전 13-16	대하29	계15	속11	요14
12월25일	수	고후 1-3	대하30	계16	속12-13:1	요15
12월26일	목	고후 4-8	대하31	계17	속13:2-8	요16
12월27일	금	고후 9-13	대하32	계18	속14	요17
12월28일	토	갈 1-3	대하33	계19	말1	요18
12월29일	주일	갈 4-6	대하34	계20	말2	요19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 2024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 새로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대한민국에 조속한 빠른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과 폭력과 갈등이 있는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가 임하며, 전 세계에 구원의 빛이 가득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최중국 황하은
-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 ◇ 주전임전도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 협동목사: 양정호
-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흥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예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임우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